

中企조합의 변신…신제품 개발서 공동판매까지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수익사업서 세 활로 찾아

해외 마케팅·수출대행도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자구노력

서울경인금속가구조합(이사장 허성희)은 올초 설립한 디자인연구소를 통해 최근 ‘ix 시리즈’란 이름의 의자들 첫 작품으로 내놓았다. 조합원(기업)의 개별적인 개발 능력으로는 제품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합이 디자인 개발에서 생산 판매까지 총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조합은 30개 가구전문 생산업체와 공동으로 조달청과 MAS(다수공급자) 계약을 추진하고 공동판매마케팅에 나서 총 2000여 품목의 MAS계약을 성사시켰다.

허성희 이사장은 “서로 경쟁하는 전문 가구업체들이 공동마케팅을 펼친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며 “조합을 주축으로 조합원 역량을 결집시킨다면 정부 조달시장은 물론 국내 가구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공서 납품 등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했던 중소기업 조합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등 변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07년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 이후 재료 공동구매와 제품 공동판매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조합들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다양한 자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소속 조합사에 배정하는 제도였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최대 ‘보호막’인 동시에 각 협동조합의 존립 기반이었다”며 “앞으로 이를 대체할 수익모델을 찾느냐 못찾느냐에 따라 950여개 중소기업 조합의 명암이 엇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사장 한상헌)은 해외 공동마케팅으로 조합원들을 돕고

있다.조합은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경험 부족과 판매망 부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대행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조합의 해외업무 실무자가 사전 조사에서 바이어 발굴은 물론 상담, 수출계약 추진, 대금회수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 방식으로 총괄 지원한다. 이 덕분에 회원사들은 종전 단체수의계약 시절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농기계협동조합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체수의계약폐지로 인한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출대행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단 수출계약을 통해 내수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속속 탈바꿈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기계협동조합 수출대행 사업에 참여한 34개 기업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1개국에 농기계

를 수출 중이다. 조합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500만달러의 수출대행 서비스 실적을 올렸다.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선윤)는 올초 업계의 숙원 사업인 두부용 콩의 직수입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의 가격 차이가 큰 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수입한 후 각 조합에 공급해왔다.

이 같은 방식의 문제점을 느낀 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 직수입으로 인한 원료가격인하 효과 및 두부제조에 적합한 콩수입 필요성 등 명분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전체 콩 수입물량 10만 t 중 1만5300 t의 직수입권을 따냈다. 연합회는 미국 현지 생산업체와의 계약제배, 다양한 수입처와의 입찰 방식을 동원해 국내 공급가를 낮추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급가 인하뿐만 아니라 공급량을 엄격 요구대로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조합원의 이익 창출 및 관련 업계 발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수입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선히 기자 mrhnd@hankyung.com



유리에서도 작동하는 광마우스

위에서 신제품 마우스를 사용해보고 있다.

마우스 전문회사인 로지텍은 9일 유리와 화장간 등 고광택 표면 위에서도 작동하는 신형 광마우스를 출시했다. 남녀 모델이 유리탁자

조선부품 일관생산의 경쟁력

삼우重, 3교대 24시간 풀가동

헤치커버·데크하우스 생산

조선 업체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 공정을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일관생산 방식을 통해 24시간 완전가동하는 중소 조선부품업체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광양에서 조선 부품을 생산하는 삼우중공업(대표 정병주)이 그 주인공. 이 회사는 총사업비 3000억원을 들여 전남 광양 읍촌 제1지방산업단지 43만㎡의 부지에 조선부품 공장을 짓고 지난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다른 조선부품 업체와는 달리 일관생산 방식을 도입, 선박 건조 비용을 줄여 조선사들로부터 주문이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주간에만 가동하던 초기와 달리 지난달부터 3교대로 설비를 24시간 완전 가동하면서 매일 4000 t 이상의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컨테이너 적재시 받침대 역할을 하는 헤치커버(hatch cover)와 선박 용 블록, 화물선·유조선 등 상선의 선실용 데크하우스(deck house)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에 공급된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다른 조선부품 업체

와는 달리 일관생산방식을 갖췄다는 것. 일반적으로 조선부품 업체들은 공장 부지가 작아 제품 생산과정에서 각각의 공정을 거칠 때마다 선박이나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의 공장으로 옮겨 작업을 한다. 이런 이유로 물류비용과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삼우중공업은 원자재인 후판의 녹을 제거하고 코팅하는 전처리 과정에서부터 절단 생산 도장 출하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일관생산방식을 갖췄다.

이 회사는 내년엔 70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월 1만 t 으로 확대하고 600~800 t 규모의 콜리엇 크레인을 도입해 대형선박 구조물과 석유시추선 등의 해양플랜트 시공장에 뛰어들기로 했다. 또 연말께 늘어나는 주문물량을 원활히 생산하기 위해 200여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할 방침이다.

정병주 대표는 “올해 250억원, 내년에는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스템 혁신과 신기술 개발로 품질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조선 부품업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엔 경쟁 필요하다”

시장경제연구원 주최 간담회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통해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성봉 연구위원은 9일 시장경제연구원(이사장 김인호·사진) 주최로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지식서비스산업이란 통신, 금융·보험,



부 주도형의 경제운용 △정보와 미흡 △경쟁 제한적인 규제 등을 지목한 뒤 “품질 및 경쟁력 평가기능의 활성화, 서비스산업 정보 인프라 구축, 행정규제 완화 등과 같은 종합적인 정부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비즈니스 센터’ 기공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에서부터 각종 애로 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선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박복규)은 10일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성서 비즈니스센

터’ 건립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다.

1단지 내에 들어설 비즈니스 센터는 총 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돼 부지 6612㎡, 연면적 1만4522㎡의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업무시설과 국제회의장, 교육 세미나실, 제품 전시관, 연회장 등이 들어선다.

김홍진 기자 jin@hankyung.com

21C 노인치매예방과 관리 및 치매교육전문가

제1회 치매예방관리사를 취득하라!!

치매노인 40만시대 사회적 관리 절실!! 고령화사회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치매예방관리 전문인력 필요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치매예방 전도사로 활동 가능



■치매예방관리사란

치매예방관리사란 노화과정에서 오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는 물론 언어능력, 공간감각, 추상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지적 능력의 감퇴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치매에 대하여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전망 및 취업처

1) 전망

급변하는 21세기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도 발달되어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화에 의한 치매노인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곧 치매노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우리들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치매노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를 관리하는 병원이나 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므로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치매에 대한 소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으로 말미암아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양을 전담하게 된 가족은 매우 큰 부양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양가족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부양가족과 치매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상되므로 치매예방관리사는 노인들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전방 또한 어느 직종보다 밝다고 할 수 있으며 치매예방관리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것이며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이다.

노인복지관련기관 취업 및 단체 운영, 치매예방 강사 및 방문 치매예방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
남녀 · 경력 · 연령 제한없이 응시가능 - 절대평가

프로그램과 치매예방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된 현실과 전문적인 치매예방 관리를 전담할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제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수요인력도 같이 증가 할 것으로

2) 대상 및 취업처
치매가정, 노인복지관, 노인그룹 홈, 실버타운, 유로 양로원, 요양보호시설, 노인전문주택 및 아파트, 일반요양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건강과 관

련된 시설과 노인교실, 종교기관, 노인교육을 하는 곳 등 종교기관, 기타 노인복지 관련 단체 운영 및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등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은 남녀, 연령, 경력에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시험과목은 1차 4과목, 2차 1과목으로 평균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치매예방관리사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해 전문교과와 상담전화등을 통해 수험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원합격을 목표로 교육관리를 하고 있다.

시험주관 : 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협회
자료제공 : 한국치매예방관리교육원
☎1544-5618